

일제 강제동원, 흠어지고 조각난 기억 잇는다

육성 녹음·기록물 기증 잇따라...역사 복원 단서 생존자 급감 속 자료 수집 시급...시민 참여 호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징용 과정을 녹음으로 남겨두셨더라고요. 어디서 출발해 어떻게 이동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탈출과 귀향 과정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복원하기 위한 시민 기록 수집이 이어지고 있다. 생존 피해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개인이 간직해 온 증언과 자료들이 역사적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다.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황소미씨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고 황광룡씨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관련 자료 4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 자료에는 1996년 녹음된 약 50분 분량의 육성 테이프와 이를 저장한 USB, 국가기록원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조사 기록, 위로금 지급 심사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육성 녹음에는 황씨가 강제동원 과정과 탈출, 귀향까지의 경험을 직접 증언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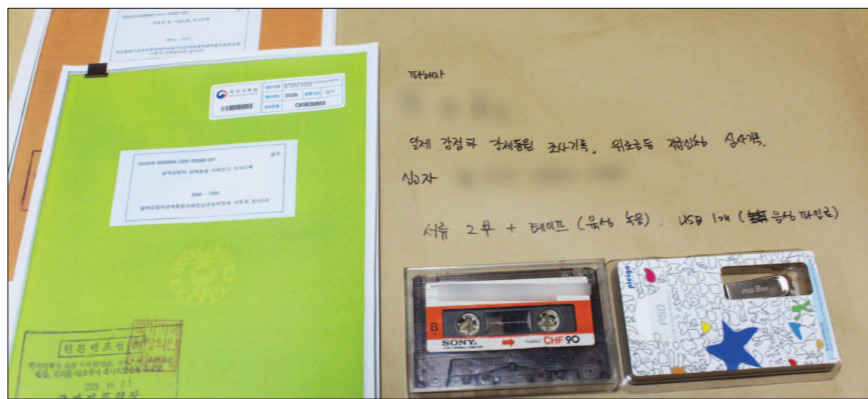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황씨는 1942년 11월 일본 후쿠오카현 아카마쓰

이프 등 관련 자료 4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 자료에는 1996년 녹음된 약 50분 분량의 육성 테이프와 이를 저장한 USB, 국가기록원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조사 기록, 위로금 지급 심사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육성 녹음에는 황씨가 강제동원 과정과 탈출, 귀향까지의 경험을 직접 증언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황씨는 1942년 11월 일본 후쿠오카현 아카마쓰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황소미씨가 기증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황광룡씨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관련 자료 4점.

조선소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돼 고된 노동을 겪었다. 이후 1944년 4월 고향 친구와 탈출을 감행해 밀선을 이용, 대마도와 완도를 거쳐 목포에 도착한 뒤 약 20일 만에 귀향한 것으로 기록됐다.

시민모임은 기증자에게 확인서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해당 자료를 전

시와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개인이 보관해 온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 실재를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료 유실과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국의 강제동

원 피해 생존자는 올해 1월 기준 434명으로, 1년 사이 200명 이상 감소했다. 피해자 고령화로 직접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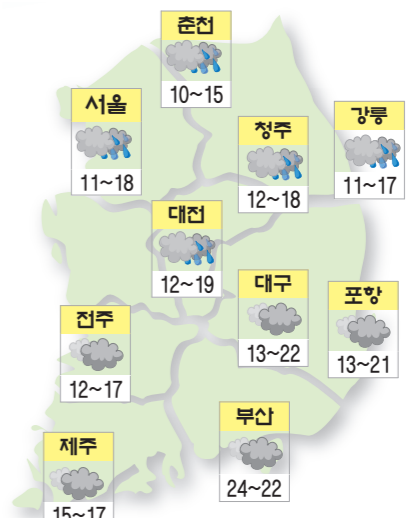
시민모임은 현재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전반에 대한 수집을 진행 중이다. 사진, 편지, 일기, 신문 자료, 피해 신고 서류, 영상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대상이며, 원본 반환도 가능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문서 한 장이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개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를 사회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흠어진 자료가 모일 때 비로소 강제동원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45	달림	16:05
맑음	19:15	달림	03:44



광주	12~18
목포	13~16
여수	13~21
순천	12~21
구례	11~19
광주	12~18
신도	13~19
목신도	12~14
진남	11~20
진도	12~15

목포	미물(고)	12:10 / 00:00
	샘물(저)	05:04 / 17:32
여수	미물(고)	07:05 / 19:35
	샘물(저)	00:47 / 13:12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서 186점 발견

11일간 누적 944점...유가족協, 부실수습 책임 규명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색 11일째 날,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품 180여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27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경찰 등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와 담장 일대에서 유해 재수색 작업을 벌여 유해 추정 물품 186점을 발견했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재수색 결과, 확인된 유해 추정 물품(누계)은 총 944점에 달한다.

경찰 등은 유해 추정 물품을 유전자 감식을 거친 뒤 유가족에게 전달할 방침

이다.

유가족들은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책, 조사에 지연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경찰, 군 등은 다음 달 29일(장정)까지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희생자 유해 재수색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임태영·정준호·김문수 국회의원이 무안공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유해 재수색 현장에 찾아 국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약속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포스터 점검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 포스터, 리플릿, 투표 절차 안내문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

월 20만원 한도 3개월까지

광주 광산구가 창업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정착을 돕는 '2026년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39세(1986년 1월 1일생~2007년 12월 31일생)의 주민등록상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다.

2023년 1월1일 이후 본인 명의의 사업 자등록을 한 뒤 현재 월 임대료 2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고,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영업장소가 모두 광산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선정 월도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를 지원한다.

대상 청년 창업자가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한 뒤 지급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월 20만원 한도로 3개월까지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한다. 관 리비와 보증금 등은 제외다.

이 사업은 올해 광산구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에 마중물 삼아 진행된다.

창업 초기 고정부 지출, 자금 운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를 접수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본인이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 및 대리 접수는 불가능하다.

임정호 기자 jh4415@

동신대, 'AI-휴먼 브릿지'로 교육혁신 선도한다

교육부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기초교양·소단위 전공 등 전주기 AI 교육 체계 구축

동신대학교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동신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대학 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교수자와 학생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동신대는 '인간 중심 가치(Human)와 AI 기술(Tech)을 융합한 AI-Human Bridge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전공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AI 역량을 갖춘 수 있는 교육 로드맵을 마련해 놓

이 가운데 3개 과목은 필수 교양으로 지정해 모든 신입생이 AI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비공학계열 학생을 위한 실전형 교육도 강화된다. AI 기반 첨단 안전관리, 디지털 휴먼 서비스 실무, 글로벌 창업 등 3개 소 단위 전공을 신설하고, '창의융합 Day' 운영 등을 통해 전공 경계를 넘는 융합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교수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DS-AI 교수 아카데미, AI-Teaching Lab,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업 컨설팅, 특목연수, 브라운백 세미나 등을 통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지역 고교 연계 프로그램과 공개 강좌(K-MOOC-KOCW)를 통해 공유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AI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 가운데 3개 과목은 필수 교양으로 지정해 모든 신입생이 AI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비공학계열 학생을 위한 실전형 교육도 강화된다. AI 기반 첨단 안전관리, 디지털 휴먼 서비스 실무, 글로벌 창업 등 3개 소 단위 전공을 신설하고, '창의융합 Day' 운영 등을 통해 전공 경계를 넘는 융합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교수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DS-AI 교수 아카데미, AI-Teaching Lab,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업 컨설팅, 특목연수, 브라운백 세미나 등을 통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지역 고교 연계 프로그램과 공개 강좌(K-MOOC-KOCW)를 통해 공유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AI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5월 2일, 차 없는 거리...“금남로가 놀이터로”

동구, 총장라온페스타와 연계...버스킹 등 다채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자보 인증 이벤트 추진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총장라온 페스타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도심 축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2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5월2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 구간은 '놀자임 존', '쉬자임 존', '줄어임 존' 등 세 가지 테마 공간으로 나뉜다.

'놀자임 존'에서는 도로가 대형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어바운스 놀이기, 자전거 교육, 탁구·농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끝말잇기 도사를 이겨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쉬자임 존'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다. 인조잔디와 빈백을 설치해 시민들이 도심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소장 도서를 교환하거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 바깥소'도 마련 된다.

'줄어임 존'에서는 자원 재순환과 친환경 실천을 주제로 아나바다 장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구만세' 플리마켓이 열린다.

이와 함께 분별 아트 체험, 유관기관 홍보부스, 푸드트럭 존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더해진다.

행사장 메인무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업으로 청년예술가 버스킹 공연 '청춘 마이크'가 열리며, 총장라온페스타 연계 프로그램인 전국 참가자들의 경연 무대 '총장K-스타 챌린지'도 펼쳐진다.

이와 함께 총장상권 일일에서는 지하

상가 문화의 날, 총장로 4·5가 도깨비장터, 페이백 영수증 이벤트, 유명 브랜드 이월상품 판매 등의 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상권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도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여권' 인증 이벤트를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체험형 콘텐츠와 문화 공연,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결합했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걷는 즐거움과 휴식, 문화 체험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당일 금남로 1~3가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며, 방문객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동구는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 대책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